

- 주요 뉴스: 연준 인사, 인플레이션에 대한 강력 대응과 신속한 연내 중립금리 도달 강조
 - IMF, 높은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부채부담 완화는 일시적 현상
 - 중국 인민은행, 주요 대출우대금리(LPR) 동결. 추가 완화에 다소 신중한 입장
 - 일본은행, 국채금리 상승 억제 위해 공개시장조작 시행. 저금리 기조 확인
- 국제금융시장: 미국은 기업들의 실적 발표와 국채금리 하락 등이 영향

주가 하락[-0.1%], 달러화 약세[-0.6%], 금리 하락[-10bp]

 - 주가: 미국 S&P500지수는 넷플릭스의 실적 부진에 따른 기술주 약세 등이 반영
유로 Stoxx600지수는 기술주와 건설주 강세 등으로 0.8% 상승
 - 환율: 달러화지수는 미국 국채금리 하락 등이 원인
유로화와 엔화가치는 각각 0.6%, 0.8% 상승
 - 금리: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는 장중 3% 근접에 따른 저가매수 유입 등이 배경
독일은 미국 채권시장과 유사한 이유로 5bp 하락

※ 원/달러 1M NDF환율(1234.3원, -1.9원) 0.1% 하락, 한국 CDS 보합

		4/20일	4/19일	전일대비			4/20일	4/19일	전일대비
주가	미국	4,459.5	4,462.2	-0.06%	국채 금리 10y	미국	2.83%	2.94%	-10bp
	유럽	460.10	456.28	0.84%		독일	0.86%	0.91%	-5bp
	중국	3,151.1	3,194.0	-1.35%	CDS 5y	한국	33bp	33bp	0bp
	일본	27,218	26,985	0.86%		중국	70bp	71bp	-1bp
	한국	2,718.7	2,718.9	-0.01%	위험 지표	EMBI+	-	380	-
환율	달러지수	100.34	100.96	-0.62%		VIX	20.32	21.37	-4.91%
	유로화	1.0853	1.0788	0.60%		WTI유	102.75	102.56	0.19%
	엔화	127.86	128.91	0.82%	원자재	구리	465.2	471.8	-1.40%
	위안화	6.4192	6.3935	-0.40%		금	1,957.8	1,950.1	0.39%
	원화	1,236.1	1,236.9	0.06%					

주: 주가는 미국 S&P 500, 유럽 Stoxx 600, 중국 상해종합, 일본 닛케이225, 한국 KOSPI. NDF 환율 변화는 스왑포인트 감안한 전일 현물환 증가 대비. 환율은 달러화 대비 통화가치 등락(+/-는 절상, 절하). 자료: 블룸버그

금일의 포커스

■ 연준 인사, 인플레이션에 대한 강력 대응과 신속한 연내 중립금리 도달을 강조

- 미국 샌프란시스코 연은 데일리 총재는 연내 정책금리가 중립금리(2.5%) 수준까지 상승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발언. 이는 연내 1~2회의 빅스텝(0.5%p 인상)이 필요하다는 의미. 물가상승에 따른 생활비 증가로 생활고를 겪는 가계가 크게 늘었다고 지적
- 시카고 연은 에반스 총재 또한 연말까지 중립금리에 도달하기 위해 정책금리를 2.25~2.50% 수준까지 올려야 한다고 강조. 또한 높은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해 지금은 통화정책 활용이 적절한 시기라고 설명
- 미니애폴리스 연은 카슈카리 총재 역시 공급 차질이 지속되면 추가 대응이 요구된다면서 인플레이션 위험을 경고. 특히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국의 엄격한 봉쇄 강화 등이 인플레이션 압력을 높이고 있다고 진단

글로벌 동향 및 이슈

■ IMF, 높은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부채부담 완화는 일시적 현상

- '재정점검보고서(Fiscal Monitor)'를 통해 높은 인플레이션으로 부채 부담 완화 현상이 발생하고 있으나, 이러한 효과는 장기간 지속되기 어렵다고 전망. 오히려 에너지 및 식품가격 상승으로 국가의 재정이 어려운 국면에 직면할 수 있다고 주장

■ 미국 지역연은보고서(베이지북), 경기는 완만하게 확장. 노동력 부족 고물가 등은 문제

- 경제는 고물가와 공급 차질 등에도 불구하고 성장을 지속하고 있다고 평가. 하지만 노동력, 원자재 등 여러 부문에서 수요가 공급을 충족시키지 못해 비용증가가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. 고물가와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성장의 저해 요인이라고 진단
- 지금은 대부분의 기업이 비용 증가분을 소비자에게 빠르게 전가시킬 수 있는 상황이라고 분석. 다만 일부 지역에서는 물가상승 여파로 매출이 감소하고 있다고 지적

■ 미국 3월 기존주택 가격, 집계가 시작된 1999년 이후 최고치

- 전국부동산중개업협회(NAR)에 따르면, 3월 기존주택 중위 가격은 전년동월비 15% 상승한 37만5000달러를 기록. NAR의 Lawrence Yun은 공급부족 등의 이유로 주택가격의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설명

■ 독일 중앙은행 총재, ECB 첫 금리인상 시기는 3/4분기 예상

- 나겔 총재는 성급한 금리인상을 경계해야 하며, 3/4분기가 첫 금리인상의 적절한 시기라고 언급. 그 이후의 금리인상 폭과 횟수는 경제지표 등에 따라 좌우될 것이라고 부연. ECB의 인플레이션 목표 달성 가능성이 점차 감소하고 있다고 지적
- 라트비아 중앙은행 카자크스 총재는 현저한 인플레이션 위험이 존재하기에 이르면 7월에 ECB의 첫 기준금리 인상이 가능하다는 의견 피력. 현재 -0.5%인 ECB 예금금리가 연말에 0%가 될 것이라는 시장 예상에 이견을 갖고 있지 않다고 발언

■ 독일 3월 생산자물가 상승률, 1949년 이후 최고치. 에너지 가격 폭등 등이 원인

- 3월 생산자물가는 전년동월비 30.9% 올라 전월(25.9%) 및 예상치(29.1%) 모두 상회. 우크라이나 전쟁 등의 여파가 본격화되면서 에너지 가격의 상승률은 84%를 기록. 이번 결과를 고려 시 당분간 소비자물가의 상승세도 지속될 가능성

■ 중국 인민은행, 주요 대출우대금리(LPR) 동결. 추가 완화에 다소 신중한 입장

- 시장 예상과 달리 1년물 및 5년물 LPR을 각각 3.7%, 4.6%로 동결. 최근 인민은행과 여타 주요 중앙은행 간 통화정책 차별화에 따른 위안화 약세 및 자본유출 등이 적극적인 추가 완화를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거론
- ING의 Iris Pang은 이번 결정으로 중국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재정정책을 통한 경기부양책 확대 여부가 중요하게 되었다고 평가

■ 일본은행, 국채금리 상승 억제 위해 공개시장조작 시행. 저금리 기조 확인

- 3월 말에 이어 다시 한 번 10년물 국채금리가 용인 상한선인 0.25%에 이르자 무제한 국채매입을 단행. 이를 통해 달러화 대비 엔화 가치가 20년 만에 최저 수준이지만, 여전히 낮은 수준의 시장금리 유지에 초점을 두고 있음을 시사

주요 경제지표

■ 주요 경제지표 발표 내용(4/20 현지시각 기준)

- 미국 3월 기존주택판매(만건, 연환산): 577, 2월(593), 예상치(580)

■ 주요 경제 이벤트(4/21 현지시각 기준)

- 연준 파월 의장 강연 및 ECB 라가르드 총재 강연

해외시각 및 외신평가

■ 미국 정부, 고물가 압력의 효과적 대응으로 위기를 기회로 활용할 필요 - 블룸버그

(How Biden Can Use Inflation to His Advantage)

- 바이든 행정부의 중요한 과제는 기후변화, 지정학적 리스크, 코로나 19가 아니라 높은 인플레이션 압력의 해소. 물가상승은 단기적으로 부채비율을 낮출 수 있으며, 이는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재정정책을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을 제공
- 동시에 고물가에 따른 실질소득 감소 상황에서 가계의 생활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상품과 서비스의 공급 확대 및 임대료 인상 억제 등이 필요. 인플레이션 상황은 당국이 장기 재정적자 축소와 실질적인 공급망 확대를 추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

■ 미국의 동맹국 중심 무역질서 재편, 중국 견제와 안정적 공급망 구축을 기대 - WSJ

(What Janet Yellen Gets Right About the World Economic Order)

- 옐런 재무장관은 신뢰할 수 있는 동맹국을 중심으로 새로운 무역체계 구조를 제시. 이는 기존의 무역질서 상황에서 효과적인 중국 견제가 어렵기 때문. 또한 인도에서 보호무역 수준의 관세 부과를 지속하는 등의 한계도 존재
- 새로운 무역질서 조성이 이루어진다면 원활한 중국산 부품의 대체와 안정적 공급망 구축이 가능. 아울러 미국 내 반도체 생산을 위해 지급하는 보조금의 축소도 예상. 다만 이를 위해서는 동맹국들과의 다자간 무역협정 체결이 선결 과제

■ 중국 경제, 수요측면의 지원을 통한 경제 불균형 해소가 요구 - Financial Times

(China's never-ending story)

■ 연준의 통화정책, 높은 원자재 가격 및 통화량 증가 고려 시 여전히 완화적 - WSJ

(To read inflation, Fed must mind its Monetary P's and Q's)

■ ECB 통화정책, 유로화 약세와 고물가 억제를 위해 공격적인 긴축 대응이 요구 - 블룸버그

(The ECB Must Act Soon to Avoid a Currency Crisis)

국제금융센터의 사전 동의 없이 무단 전재 금지 ; 본 자료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투자행위 등에 대하여 일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 문의: 02-3705-6172, E-mail jsjeong@kcif.or.kr